

수식으로 ‘눈이 빠지게’나 ‘목이 빠지게’라는 특정 표현이 ‘기다리다’의 수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이들 어휘요소의 개별적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휘적 공기 관계로 간주된다. DEC에서 어휘적 공기 관계는 어휘함수라는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설명한다.⁷⁾ 의미적 공기 관계도 중시하여 정의 작성시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표제항 어휘요소가 어떤 표현과 공기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표상하지는 않는다. 그런 표현들의 집합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부터 그런 표현과의 공기 가능성이 예측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7~9의 세 가지 기준은 어떤 어휘요소의 정의에 어떤 의미 성분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해당 어휘요소의 결합적 속성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기준이다.

기준 7. 질적 수식어와의 공기 관계의 기준: L의 정의는 L과 그 질적 수식어 사이의 공기 관계를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기도’의 정의에 어떠한 의미 성분들이 들어가야 할까? 기도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회개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기도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도’의 정의에 목적과 관련된 것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 ‘간절히 기도하다’에서 보듯이 명사 ‘기도’는 형용사 ‘간절한’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동사 ‘기도하다’는 부사 ‘간절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간절하다’는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이 강하고 절실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므로, ‘기도’나 ‘기도하다’의 정의에는 “바라다”라는 의미 성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준 8. 양화사와의 공기 관계의 기준: L의 정의는 L과 양화사 사이의 공기 관계를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7) 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상술한다.

‘김’이나 ‘미역’이나 ‘파래’ 모두 해조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김’은 ‘김 두 장’과 같이 수량 단위 의존명사 ‘장’을 사용하여 수량화될 수 있는 반면에 ‘미역’이나 ‘파래’는 그런 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김’의 정의에 종이처럼 얇고 네모진 형태라는 의미 성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준 9. 부정과의 공기 관계의 기준: L의 정의는 L이 부정과 결합되는 방식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망인’을 “남편을 여윈, 결혼했을 만한 나이의 여자”라고 정의한다고 가정한다면, ‘김 교수는 미망인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김 교수가 여자가 아닐 때도 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김 교수는 미망인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들어도 김 교수가 여자라고 전제한다. 따라서 ‘미망인’의 정의에서 “남편을 여윈”이라는 의미 성분과 “결혼했을 만한 나이의 여자”라는 의미 성분이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DEC에서는 이렇게 否定되어도 보존되는 의미 성분, 즉 전제에 해당하는 의미 성분은 따로 명시적으로 표상해 준다. 즉 ‘X는 미망인이다’ 같은 피정의항의 경우 “X는 결혼했을 만한 나이의 여자인데 || 남편을 여의었다”와 같은 식으로 전제 부분을 따로 떼어서 ‘||’ 앞에 제시한다.

6~9의 기준은 정의에 어떤 의미 성분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정의에 포함시킬 의미 성분이 결정되고 나면, 이들 성분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정의에 사용되는 의미 성분들을 그 지위나 성격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DEC에서 구분하고 있는 의미 성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6) 의미 성분의 종류

㉠ 보통 성분: 다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의미 성분이 이에 속

한다.

- ㉠ 유개념 성분: ‘장롱’을 ‘옷이나 이불 등을 넣어 두는 가구’라고 정의할 때 ‘가구’가 유개념 성분에 해당한다. 즉 어휘요소 L의 시니피에가 속하는 가까운 장르를 말한다.
- ㉡ 약한 성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억제되고 무효화되는 의미 성분이다. ‘자동차’의 정의에 바퀴가 4개라는 의미 성분이 포함된다고 가정할 때, ‘3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이 무효화되어야 하므로 약한 성분이라 할 수 있다. 괄호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 ㉢ 수의적 성분: 무표적으로는 그대로 성립되지만 반대되는 명시적인 언급이 있을 때에는 취소되는 성분이다. ‘교수(教授)’의 정의에 “교육기관에 소속되어”라는 의미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데, ‘개인교수’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이 성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성분은 수의적 성분이다. 괄호 안에 넣어 표시한다.
- ㉣ 변항에 대한 제약: 표제항이 술어적 의미를 지닐 때, 표제항의 의미 논항의 특징을 기술하는 부분이다. ‘X가 Z에게 W에 대해 Y를 지불하다’에서 변항 Y가 돈의 액수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이에 해당한다.
- ㉤ 전체적 부분: 否定되어도 변함 없이 성립되는 의미 성분이다. 앞의 ‘미망인’의 예 참조.

정의에서 이들 성분의 배열 순서와 관련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6. 의미론적 관여성에 의한 배열의 원칙: 의미 특성 (σ_1)을 나타내는 성분이 (σ_2)를 나타내는 성분보다 더 관여적이라면, 전자가 후자보다 앞에 와야 한다.

‘손가락’의 정의에 “움직일 수 있다”, “마디로 나뉘어 있다”, “길쭉하다” 등의 속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 중 어느 것이 더 관여적인가? ‘그는 손가락이 너무 짧아서 사과를 쥐기도 어렵다’ 같은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따라서 “길

쭉하다”는 것은 손가락의 필수적인 속성은 아니다. 그리고 로봇의 손가락 같은 경우 마디로 나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다섯 가닥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손가락이라고 부르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손가락’의 정의에서 관여성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마디로 나뉘어 있다”, “길쭉하다”의 순서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의미 구획에서 사전적 정의가 제시된 뒤에는 내포적 의미connotation가 제시된다. 내포적 의미란 L의 사전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L이 자신의 지시대상에 부여하는 의미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바람’이라는 vocable의 기저 어휘요소는 “기상 현상으로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공기의 수평적 움직임” 정도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바람이 나다’, ‘바람이 들다’, ‘바람을 넣다’ 등의 속어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바람에 대해 “들뜨고 허황되다” 내지 “덧없다” 정도의 의미 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나다’ 같은 속어소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들뜨고 허황되다” 또는 “덧없다” 같은 의미 성분을 기상 현상으로서의 ‘바람’의 정의에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 성분은 기상 현상으로서의 ‘바람’의 내포적 의미에 제시된다.

어떤 의미 성분이 정의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내포적 의미에 포함되는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DEC에서는 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 10. 반대 의미의 기준: L의 의미 성분의 후보 (σ)가 있다고 할 때, (σ)의 의미를 갖는 수식어를 L에 부가했을 때 모순을 낳게 되면, L의 정의에 (σ)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σ)가 L의 내포적 의미에 포함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바람에 대해 “덧없다” 내지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 특성을 부여하는 듯한데, ‘이 지역에는 1년 내내 바람이 일정하게 분다’와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성립되므로 반대 의미의 기준에 의해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 성분은 정의가 아니라 내포적 의미에 제시된다.

기준 11. “나쁜 상태”의 기준: “L의 지시대상이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L의 지시대상이 어떤 기능(σ)을 잘 못한다”는 것을 함의한다면, (σ)가 L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L의 내포적 의미에 포함된다.

‘머리’와 ‘가슴’은 기저 어휘요소로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데, 부차적으로 ‘머리’는 “思考의 중추 기관”, ‘가슴’은 “감정의 중추 기관”이라는 의미 특성도 화자들이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같은 예). 이들 부차적 의미 특성을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기저 어휘소의 정의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포적 의미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같은 표현이 “사고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를 함의하므로, “사고의 중추 기관”이라는 의미 성분은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머리’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슴이 아프다’ 같은 표현이 “감정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함의를 갖지는 않으므로, “감정의 중추 기관”이라는 의미 성분은 ‘가슴’의 내포적 의미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2.3 통사적 결합 구획

어떤 어휘요소의 통사적 행동 중에는 그 어휘요소의 의미 내지 정의로부터 예측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났다’가 ‘-보다’ 보어를 취하는 것은 ‘났다’의 의미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못하다’가 ‘-만’ 보어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미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통사적 특이성 syntactic idiosyncrasy이다. 현대 언어학에서는 전자의 사실에 주로 주목하고 의미와 통사 특성의 상관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후자의 정보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이것은 사전에서 명시해 주어야 한다. DEC의 통사적 결합 구획은 바로 이런 정보를 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이다.

어휘요소 L의 통사적 특성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어휘요소 L이 다른 어휘요소에 통사적으로 의존하는 방식과 관련된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L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의존요소들의 통사적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된 특성이다. 전자는 어휘적 속성이라기보다는 문법적 속성에 가깝고, 따라서 사전에서 제공할 만한 정보는 아니다. 따라서 DEC는 후자의 정보에 초점을 맞춘다.

어휘요소 L이 거느리고 있는 요소들, 즉 논항들에 대한 정보는 L의 통사적 결합 구획에서 제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정보이다. 그런데 MTT에서는 논항이라는 개념을 층위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하여 정의한다. 즉, 의미 표상, 심층 통사 표상, 표층 통사 표상 등 여러 표상 층위가 구분되며, 이에 따라 논항의 개념도 의미 논항, 심층 통사 논항, 표층 통사 논항으로 구분하여 정의되는 것이다(홍재성·박동호 2000 참조). 어휘요소 L이 述語的 의미를 가질 경우, 이 술어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논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언어 표현들을 어휘요소 L의 의미 논항actant sémantique이라고 한다. 의미 논항은 흔히 X, Y, Z, W와 같은 변항으로 표시한다. 의미 논항에 해당하면서 L에 통사적으로 의존하는 요소를 L의 심층 통사 논항actant syntaxique profond이라고 한다. 심층 통사 논항은 I, II, III과 같은 로마숫자로 표시한다. 표층 통사 논항은 표면적으로 L에 통사적으로 의존하는 요소를 말하며, 전통문법의 주어, 목적어 등에 해당한다. ‘만들다’를 예로 들면, 이 어휘요소는 의미상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므로 X(만드는 자), Y(만들어지는 것)라는 2개의 의미 논항을 갖는다. X는 심층 통사 표상에서 주어에 해당하므로 심층 통사 논항 I이 되고, Y는 심층 통사 표상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심층 통사 논항 II가 된다. 그런데 심층 통사 논항과 표층 통사 논항이 항상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표층 통사 표상에서 능동태로 실현되면(‘철수가 책꽂이를 만들었다’) I은 주어로 실현되고 II는 목적어로 실현되는 반면에, 표층 통사 표상에서 피동태로 실현되면(‘책꽂이가 철수에 의해 만들어졌다’) II가 주어로 실현되고 I은 사격 보어로 실현된다. 영어나 불어의 氣象 동사, 예를 들어 *rain, snow; pleuvoir, neiger*는 의미 논항이나 심층 통사 논항을 갖지 않지만,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표층 통사 층위의 규칙 때문에 *it, il* 같은 허사 주어를 표층 통사 논항으로 취한다. ‘굴다’ 같은 경우 심층 통사 논항 II가 표층에서는 부사형어미 ‘-게’나 부사격조사 ‘-처럼’, ‘-같이’로 끝나는 부사어로 실현된다.

DEC의 통사 결합 구획에 제시되는 L의 논항 정보는 심층 통사 논항에 대한 정보이다. 이 정보는 지배도식government pattern/schéma de régime이라 불리는 표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 표에서 표제항의 심층 통사 논항들의 수와 형태에 관한 정보, 논항들 사이의 공기 제약에 관한 정보 등이 명시된다. ‘약속하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예: ‘약속하다’의 지배도식

| I=X | II=Y | III=Z |
|------------------|---|--|
| N _{nom} | (1) N _{acc} (2) 절+-을 것을 (3) 절+-기로 (4) 절+-다고/자고/마고 | (1) N _{dat} (2) N _{com} |

- ① X와 Z는 사람임.
- ② Y는 사태(동작)임.
- ③ Z=(1)이면 Y의 의미상 주어는 X임.
- ④ Z=(2)이면 Y의 의미상 주어는 X+Z 또는 X임.
- ⑤ Z가 나타나지 않고 X가 복수일 수도 있음.
- ⑥ Z=(1)이고 Y=(4)일 때 ‘절+-다고/마고’만 가능.
- ⑦ Z=(2)이고 Y=(4)일 때 ‘절+-자고’만 가능.

‘약속하다’의 의미는 약속의 주체인 화자, 약속한 발화 내용, 말을 듣는 청자의 세 논항을 요구하는데, 이 셋에 해당하는 요소가 각각 의미 논항 X, Y, Z가 되며, 이에 해당하는 심층 통사 논항이 각각 I, II, III이 된다. 이 세 논항이 위 표에서 각각 하나의 열colonne을 차지한다. 각 열 내에서는 이 논항이 표층 통사 표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들을 모두 제시한다. I은 주격 명사로밖에 실현될 수 없지만, III은 여격 명사 또는 공동격 명사로 실현될 수 있으며, II는 대격 명사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절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각 열 내의 각 행ligne에 해당한다.

표 밑에는 각 논항의 각각의 표면적 실현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제시된다. 우선 특정 열의 특정 행이 명사일 때, 이 명사가 특정 의미 부류에 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마시다’의 목적 보어 명사의 지시 대상은 流體이어야 한다. 흔히 선택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약속하다’의 경우 X와 Z 모두 사람이어야 하고, Y는 X가 수행하겠다고 하는 미래의 동작이다. 또한 특정 논항의 특정 실현 방식은 다른 논항의 특정 실현 방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제약 관계로 맺어져 있을 수 있다. 이런 논항의 실현들 사이의 제약 관계도 명시된다. ‘약속하다’의 경우 Z가 여격이면 Y는 ‘다고’, ‘마고’로 실현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고’는 불가능하다. 반면에 Z가 공동격이면 Y는 ‘-자고’만 가능하다.

3.2.4 어휘적 결합 구획

DEC에서는 특정 단어들 사이에 성립되는 결합상의 제약이나 어휘관계를 어휘함수라는 기제를 통해 포착한다. 규칙적 어휘함수(단순 표준 어휘함수), 불규칙적 어휘함수(복합 어휘함수, 어휘함수의 배열, 비표준 어휘함수)로 나누어 제시한다.⁸⁾

3.2.5 용례 구획

앞의 각 항목에서 제시된 언어학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용례를 적절한 순서로 제시한다. 특정 제약을 보여 주기 위해 불가능한 용례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코퍼스에서 적절한 용례를 찾아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언어학적 정보를 적절히 예시하기 위해 코퍼스에서 추출된 용례에 변개를 가할 수도 있고 용례를 완전히 만들어낼 수도 있다.

3.2.6 관용표현 구획

DEC에서 모든 숙어소phrasème를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는다. 우선 숙어소의 3

8) 어휘함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절 참고.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7) 숙어소의 종류

- ㉠ 완전한 숙어소 *phrasème complet*: 숙어소 AB가 'C'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때, 'C'가 A의 의미도, B의 의미도 포함하지 않을 때, 즉 'C'가 'A', 'C'가 'B'일 때, AB를 완전한 숙어소라고 한다.
- ㉡ 의사 숙어소 *quasi-phrasème*: 숙어소 AB가 'A', 'B'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의미 성분 'C'를 추가적으로 더 가지는 경우, 즉 AB가 'ABC'의 의미를 갖는 경우.
- ㉢ 준숙어소 *semi-phrasème*: 숙어소 AB가 두 구성 요소 중 하나의 의미는 유지하지만 하나의 의미는 유지하지 않는 경우, 즉 AB가 'AC' 또는 'BC'의 의미를 갖는 경우.

표제항을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숙어소와 의사 숙어소들을 관용 표현 구획에 낱낱이 제시하고, 준숙어소에 관한 정보는 어휘함수로 처리한다. 관용표현 구획에는 표제항을 포함하는 숙어소들의 목록만 제시될 뿐, 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들 각각의 숙어소는 독자적인 표제항으로 DEC에 등재되며, 여기서 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시된다.

4. 어휘함수

결합설명 사전의 어휘 기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휘함수 *fonction lexicale*, FL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단어들 사이의 어휘관계를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휘함수는 어휘관계 중에서도 제도화된 어휘관계 *institutionalized lexical relation*를 체계적으로 표상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제도화된 어휘관계란, 두 어휘 단위 L_1 과 L_2 가 있을 때 L_2 에 대해 M이라는 특정 의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L_1 이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경우에 L_1 과 L_2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의미 M에 해당하는 어휘함수를 F라고 하면 이

어휘관계는 'F(L₂)=L₁'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매우 높은 정도”라는 의미(M)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피수식어(L₂)가 ‘거짓말’일 때에는 수식어(L₁)로 ‘새빨간’이 선택되고 피수식어가 ‘사의(謝意)’일 때에는 수식어로 ‘심심(甚深)한’이 선택된다. 이 때 ‘새빨강-’과 ‘거짓말’, ‘심심하-’와 ‘사의’는 제도화된 어휘관계를 맺는다고 한다. 즉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럿 존재하며 그들 중 어느 것이 선택되는지가 다른 단어에 의해 결정될 때 이들 단어 사이의 어휘관계는 제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매우 높은 정도”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어휘함수를 Magn이라고 하면 위의 어휘관계는 ‘Magn(거짓말)=새빨간’, ‘Magn(사의)=심심한’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도화되지 않은 어휘관계는 그런 어휘적 민감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더러운”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더러운’, ‘不潔한’, ‘不淨한’, ‘지저분한’ 등이 있지만 이들은 피수식어가 무엇이나(‘손’, ‘집’, ‘옷’ 등)에 따라 어느 하나가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이들의 쓰임에 화용론적 제약이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휘적 민감성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관계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므로 어휘함수에 의한 기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어휘함수는 수학적 의미에서 함수이며(f(x)=y), x를 함수의 논항argument 또는 표제어mot-clé, y를 함수값valeur이라 한다. ‘어휘’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함수의 표제어도 어휘요소이고 함수값도 어휘요소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어휘함수는 매우 특징적인 의미로서, 다음의 3가지 특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8) 어휘함수의 내용적 특성

- ㉠ 어휘함수와 관련된 의미는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매우 많은 어휘요소를 논항으로 가질 수 있다.
- ㉡ 함수값이 되는 어휘요소도 매우 다양해야 한다.
- ㉢ 함수값이 되는 어휘요소는 논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어휘함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우선 함수의 정의구역과 치역의 크기가 크나 작으나에 따라 표준 어휘함수와 비표준 어휘함수로 나뉜다. F가 나타내는 의미가 일반적이어서 매우 많은 수의 단어에 적용되어 매우 다양한 함수값을 갖는 것은 표준 어휘함수이고, 제한된 적은 수의 단어에 적용되거나 매우 적은 함수값밖에 갖지 않는 것은 비표준 어휘함수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매우 높은 정도의”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어휘함수 Magn은 많은 단어에 적용되어 많은 함수값을 낳기 때문에 대표적인 표준 어휘함수로 분류된다. 반면에 영어에서 “썩은, 부패한”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함수는 비교적 적은 수의 단어에 적용되고 함수값도 많지 않으므로 비표준 어휘함수의 예라 할 수 있다. 표준 어휘함수는 많은 언어에 나타나고 換言paraphrasing 규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표준 어휘함수는 특정 언어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환언 규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Mel'čuk은 대부분의 언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표준 어휘함수가 60여 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둘 이상의 어휘함수가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反義관계를 나타내는 어휘함수 Anti와 Magn이 합성된 AntiMagn은 “낮은 정도”를 의미한다. AntiMagn과 같이 둘 이상의 어휘함수가 결합된 것은 복합 어휘함수, Anti나 Magn같이 둘 이상의 어휘함수로 분해될 수 없는 것은 단순 어휘함수라고 한다. 단순 어휘함수 중에는 혼자서는 실현되지 않고 항상 복합 어휘함수의 일부로만 실현되는 것도 있다. 강도의 강화, 약화를 뜻하는 Plus, Minus, 기동, 지속, 종결 등 사태의 相的 국면을 나타내는 Incep, Cont, Fin 등이 그 예이다.

복합 어휘함수는 수학적 의미의 합성함수와는 성격이 다르다. 수학에서는 $fg(L)=f(g(L))$ 이 성립되나 복합 어휘함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IncepOper₁(‘협상’)≠‘들어가다’이고 Oper₁(‘협상’)≠‘벌이다, 하다’이지만 Incep(‘벌이다’)≠‘들어가다’의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복합 어휘함수와 좀 다른 것으로 어휘함수의 배열configuration de fonctions lexicales이란 것이 있다. 서로 통사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논항을 취하는 두 어휘함수의 결합으로서, 해체할 수 없는 하나의 의미를 둘이 함께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Magn+A₁(병) = 위독한 Magn+Manif(기쁨) = 넘치다

한편 어휘함수에 의해 맺어지는 두 단어 사이의 관계가 계열관계나 통합관계냐에 따라 계열적 어휘함수와 통합적 어휘함수로 나누기도 한다. 반의관계를 나타내는 Anti, 동의관계를 나타내는 Syn 등은 계열적 어휘함수이고 Magn은 통합적 어휘함수의 예이다. 지금까지 어휘론은 계열관계에 대한 연구에 치중해 왔다. 그래서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의·하의관계 등의 계열적 의미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통합관계에 대한 어휘론적 연구는 많지 않다. Melčuk의 이론, 특히 어휘함수 개념은 통합관계에 대한 체계적 기술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Melčuk의 어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단순 표준 어휘함수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여러 언어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므로 언어간 어휘 대조 연구나 기계 번역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목적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9) 단순 표준 어휘함수: 어휘요소 L에 대해 어휘요소들의 집합 f(L)을 연결지어 주는 함수 f로서, 다음 네 조건을 만족시킨다.

- ㉠ 두 어휘요소 L₁과 L₂의 모든 쌍에 대해, L₁과 f(L₁)의 관계는 L₂와 f(L₂)의 관계와 동일하다.
- ㉡ 일반적으로 f(L₁) ≠ f(L₂)
- ㉢ 함수 f의 표제어 수가 많아야 한다.
- ㉣ 함수 f의 함수값 수가 많아야 한다.

어휘함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단순 표준 어휘함수 중 중요한 것 몇 개를 제시한다.

4.1 계열적 어휘함수

1. Syn [synonymum]⁹⁾: 동의어.

9) [] 안에 제시한 것은 어휘함수의 이름의 출처이다. 대개 라틴어나 프랑스어와

| | |
|-------------------|----------------|
| Syn(결혼)=혼인 | Syn(미워하다)=증오하다 |
| Syn(어리둥절하다)=얼떨떨하다 | Syn(사랑)=애정 |
| Syn(쓰다)=사용하다 | Syn(밝다)=환하다 |

의미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擬似 동의관계의 경우 집합 관계 표시를 이용하여 Syn_{\supset} , Syn_{\subset} , Syn_{\cap} 와 같이 나타낸다. $Syn_{\supset}(X)=Y$ 는 Y의 정의가 X의 정의를 포함한다는 것(즉 Y의 의미성분이 더 풍부하다는 것, 다시 말해 Y가 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Syn_{\subset}(X)=Y$ 는 Y의 정의가 X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Syn_{\cap}(X)=Y$ 는 X의 정의와 Y의 정의가 부분적으로 일치함[intersecting]을 의미한다.

Syn_{\supset} (좋아하다)=사랑하다 Syn_{\subset} (대화하다)=이야기하다 Syn_{\cap} (부업)=주방

2. Conv [conversivum]: 상대관계에 있는 단어. 의미 논항들의 지위가 바뀌는 양상을 숫자로 표시.

| | |
|-----------------------------|-----------------------------|
| Conv ₂₁ (남편)=아내 | Conv ₂₁ (이기다)=지다 |
| Conv ₃₂₁ (주다)=받다 | Conv ₂₃₁ (평가)=평판 |

3. Figur [figuraliter]: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상투적인 비유적 표현.

| |
|------------------------------|
| Figur(침체)=늪 [침체=침체의 늪] |
| Figur(홍분)=도가니 [홍분=홍분의 도가니] |
| Figur(비난)=화살 [비난=비난의 화살] |
| Figur(절망)=구렁텅이 [절망=절망의 구렁텅이] |

4. S₀, V₀, A₀, Adv₀ [영 substantival, verb, adjective, adverb]: 어휘적 의미가 같은, 대응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 | |
|-------------------------|--------------------------|
| S ₀ (죽이다)=살해 | A ₀ (지혜)=지혜롭다 |
|-------------------------|--------------------------|

영어도 몇 개 있다.

V₀(승리)=이기다 Adv₀(빠르다)=빨리

4.1.1 명사 어휘함수

5. S_i [영 substantival]: 표제어가 가리키는 상황의 i번째 의미 논항을 나타내는 표준적인 이름.

S₁(가르치다)=교사 S₂(가르치다)=과목 S₃(가르치다)=학생
 S₁(이야기)=화자 S₂(이야기)=내용 S₃(이야기)=청자
 S₁(팔다)=상인 S₂(팔다)=상품 S₃(팔다)=고객 S₄(팔다)=가격

6. Sing [singulus]: 표제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하나의 예, 단위.

Sing(합대, 선단)=배 Sing(의회)=의원 Sing(내각)=각료
 Sing(당)=당원 Sing(총격)=발 Sing(나무)=그루 Sing(책)=권

7. Mult [multum]: 표제어가 가리키는 대상들의 집합체. Mult와 Sing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음.

Mult(위원)=위원회 Mult(사절)=사절단 Mult(군인)=군대

4.1.2 형용사 어휘함수

8. A_i [영 adjective]: 표제어가 가리키는 상황의 i번째 논항의 (상황 내에서의) 역할을 정의해 주는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A₁(즐기다)=즐겁다 A₂(속썩이다)=속상하다 A₂(괴롭히다)=괴롭다

9. Able_i [habilis]: 가능한 i번째 의미 논항을 정의해 주는 일반적 속성.

Able₁(타다)=可燃性이다 Able₁(발생하다)=가능하다 Able₁(웃기다)=우습다
 Able₂(놀라다)=놀랍다 Able₂(이해하다)=이해할 만하다
 Able₂(무서워하다)=무섭다 Able₂(존경하다)=존경스럽다
 S₁Able₁(올다)=올보 S₁Able₁Caus(웃다)=코미디언

Adv₁(질주하다)=빠른 속도로

Adv₁(폭락하다, 폭등하다, 급락하다, 급등하다, 급강하하다)=큰 폭으로

Adv₁(변모하다, 달라지다, 성장하다, 발전하다)=몰라보게

Adv₂(급파하다)=갑자기, 급작스럽게

4.2.3 동사 어휘함수

16. Pred [praedicatum]: 표제어가 가리키는 대상이거나 표제어가 나타내는 속성을 가짐을 나타내는 동사. Pred(L)=L+Copul(L).

Pred(이웃)=이웃하다 Pred(독재자)=독재하다

Pred(폭군)=폭정을 휘두르다 Pred(교사)=가르치다

Pred(효자, 효녀)=효도하다

17-19. 기능동사

17. Oper_i [operari]: 술어명사인 표제어를 목적어(또는 제1 보어)로 갖고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주어로 갖는 기능동사.

Oper₁(결론)=내리다, 짓다, 내다 Oper₁(전화)=하다, 걸다

Oper₁(노력)=하다, 기울이다, 경주하다

Oper₁(도망)=하다, 치다, 가다, 오다, 다니다

Oper₁(성공)=하다, 거두다 Oper₁(실패)=하다, 돌아가다

IncepOper₁(토의, 심사, 심의, 협상)=들어간다

IncepOper₁(절망)=빠지다 IncepOper₁(파업)=돌입하다, 들어간다

Oper₂(공격, 파달림)=받다, 당하다 Oper₂(비웃음, 부러움, 미움)=사다

Oper₂(의심, 의혹)=받다, 사다 Oper₂(잔소리, 걱정, 꾸중, 핀잔)=듣다

Oper₂(저항)=받다, 부딪히다 Oper₂(조사, 검사, 진단, 비난, 놀림, 버림)=받다

Oper₃(약속1)=받다, 받아내다

18. Func_i [functionare]: 술어명사인 표제어를 주어로 갖고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목적어(또는 제1 보어)로 갖는 기능동사.

Func₀(결론)=나다,나오다 Func₂₁(명령,지시)=내려오다,떨어지다
 Func₀(침묵)=흐르다 Func₂₁(연락,전화,빼빼,무전,전보)=오다
 Func₁(부패,부정)=만연하다 MagnFunc₂₁(비난,질문)=쏟아지다
 MagnFunc₂₁(문의,전화)=빚발치다,쇄도하다

19. Labor_{ij(k)} [laborare]: 술어명사인 표제어를 제2 보어로 갖고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주어로 갖고 표제어의 j번째 논항을 목적어(또는 제1 보어)로 갖는
 기능동사.

Labor₁₂(고려,계산)=넣다 Labor₁₂(염두,기억)=두다
 Labor₁₂(심사,심의,토의,토론,표결)=부치다

20-22. 실현 동사

20. Real_{0/i} [realis]: 표제어 명사를 목적어(또는 제1 보어)로 가지면서 표제어의
 요구·목표를 실현함을 나타내는 동사.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주어로 가짐.
 Real₁(목적,목표)=달성하다,이루다,성취하다

Real₁(소원)=풀다,성취하다 Real₁(약속)=지키다,이행하다
 Real₁(주장)=증명하다,입증하다 Real₂(명령)=이행하다,수행하다,따르다
 Real₂(요구)=만족시키다,충족시키다,이행하다
 Real₂(법,법규,규제)=지키다,따르다 Real₂(시험,테스트)=붙다,합격하다

21. Fact_{0/i} [factum]: 표제어 명사를 주어로 가지면서 표제어의 요구·목표가 실현
 됨을 나타내는 동사.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제1 보어로 가짐.

Fact₀(꿈,희망,소망)=실현되다,이루어지다 Fact₀(영화)=상영되다
 Fact₀(구름,떡구름)=끼다 Fact₁(신)=내리다 Fact₁(귀신)=들리다

22. Labreal_{ij} [Labor+Real]: 표제어 명사를 제2 보어로 가지면서 표제어의 요구·
 목표를 실현함을 나타내는 동사. 표제어의 i번째 논항을 주어로 갖고 j번째
 논항을 목적어로 가짐.

Labreal₁₂(絞首臺)=매달다

Labreal₁₂(갈, 톱)=자르다, 썰다

23-25. 相 동사. Incep [incipere], Fin [finire], Cont [continuare]: 사태의 시작, 끝, 계속의 相的 국면을 나타냄.

Incep(있다)=생기다, 발생하다

IncepOper₁(이야기, 말)=걸다, 붙이다

Fin(P) = Incep(nonP)

FinOper₁(오해)=풀다

FinOper₁(희망)=잃다, 버리다

FinOper₂(신임, 신용)=잃다

Cont(P) = nonFin(P) = nonIncep(nonP)

ContOper₁(침묵)=지키다

ContOper₁(침착성)=유지하다

26-28. 사동사

26. Caus [causare]: 사태의 발생을 야기함.

Caus(자다)=채우다

CausIncep(있다)=만들다, 창조하다, 세우다, 건립하다

CausOper₁(절망)=빠뜨리다

CausOper₁(희망)=주다, 붙여넣다

CausFinOper₁(희망)=빼앗다

CausOper₂(공격, 침략)=부르다, 초래하다

27. Liqu [liquidare]: 사태가 중지되도록 함.

Liqu(P) = Caus(nonP)

Liqu(있다)=없애다

LiquFunc₁(부패, 부정)=일소하다, 척결하다

28. Perm [permittere]: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

Perm(p) = nonLiqu(p) = nonCaus(nonP)

PermOper₁(공격, 침략)=허용하다

PermOper₁(입장, 판매)=허락하다, 허가하다, 용인하다, 묵인하다, 못본체하다

notPermOper₁(입장, 판매, 공격, 침범)=불허하다, 금지하다, 막다, 방해하다

29. Degrad [degradare]: 표제어 명사를 주어로 취하면서 표제어의 상태가 나빠짐을 의미하는 동사.

Degrad(음식)=상하다 Degrad(옷)=헤지다, 헐다
 Degrad(꽃)=시들다 Degrad(기강)=해이해지다
 Degrad(기억력)=쇠퇴하다, 떨어지다
 Degrad(달걀)=끓다 Degrad(색)=바래다 Degrad(쇠)=녹슬다

30. Son [sonare]: 표제어 명사의 특징적 소리가 남을 나타내는 동사.

Son(개)=짖다 Son(바람)=윙윙거리다
 Son(시계)=똑딱거리다 Son(돼지)=꿀꿀거리다
 Son(자동차, 엔진)=붕붕거리다 CausSon(자동차, 엔진)=붕붕거리다

이 밖에 한국어 어휘 기술을 위해 설정될 수 있을 만한 잠정적인 FL들을 다음에 몇 가지 제시한다.

Son_{adv}: 표제어가 지시하는 동물이나 물건이 발하는 특징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를 표제어와의 대응관계 속에서 형식화하는 FL. 한국어에 풍부한 의성어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표상하기 위해 FL Son과 구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on_{adv}(개)=멍멍 Son_{adv}(개구리)=개골개골 Son_{adv}(귀뚜라미)=귀똥귀똥
 Son_{adv}(까치)=까각 Son_{adv}(눈)=쁘드득 Son_{adv}(돼지)=꿀꿀
 Son_{adv}(소)=음매 Son_{adv}(시계)=똑딱똑딱 Son_{adv}(전화)=따르릉
 Son_{adv}(종)=땡땡 Son_{adv}(쥐)= 짹짹 Son_{adv}(차)=부르릉
 Son_{adv}(참새)= 짹짹 Son_{adv}(호랑이)=어흥

Modul: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의 동사와 악기 명사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FL.

Modul(가야금)=뜯다 Modul(거문고)=타다 Modul(기타)=치다
 Modul(나팔)=불다 Modul(바이올린)=켜다 Modul(북)=치다
 Modul(피리)=불다 Modul(피아노)=치다